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정치국 확대회의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3돐경축 민간 및 안전무력열병식 성대히 거행

조선

주체110 (2021) 10

(783)

주체45(1956)년 4월
화보《조선》창간

차 례 CONTENTS

편집: 신재철, 김정철, 서철남, 김규성, 최일선, 송 룡

6

56

72

82

86

표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3돐경축 민간 및 안전무력열병식 성대히 거행
뒤표지: 공화국창건 73돐을 경축하는 수도의 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정치국 확대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9월 2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은**동지께서 회의에 참석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김정은**동지께서 회의를 사회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이번 회의에서 국토환경보호사업을 비롯하여 나라의 백년지계를 도모하는 중장기적인 전망사업들을 힘있게 추진하고 당면한 현행과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들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본 회의에서 취급할 의안들을 제기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상정된 의정들을 심의하고 전원일치로 가결하였다.

정치국 확대회의는 당의 국토관리정책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한 문제, 세계적인 보건위기가 날로 악화되고있는데 맞게 방역대책들을 더욱 빈틈없이 세울데 대한 문제,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일데 대한 문제, 올해 농사결속을 잘할데 대한 문제들을 주요하게 연구협의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먼저 전국적인 국토관리실태를 상세히 분석총화하시고 도, 시, 군들의 역할을 높여 국토관리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밝히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모든 시, 군들에서 자체의 힘으로 국토관리사업을 강력히 추진하여 자기 지역을 그 어떤 자연재해에도 끄떡없게,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것이 이번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의 핵심사상이라고 언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다음으로 세계적인 보건위기가 날로 악화되는데 맞게 국가적인 방역대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다음으로 경공업부문에서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일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회의에서 올해 농사결속을 잘하여 계획한 알곡생산목표를 반드시 점령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올해 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고 인민들의 식량문제해결에서 돌파구를 열기 위한 당중앙위원회적인 조치를 취할데 대하여 지시하시였다.

회의에서는 해당한 결정들이 채택되였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조직문제가 취급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회의를 결속하시면서 중앙과 지방의 모든 일군들이 당과 혁명, 인민앞에 지닌 무거운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당의 결정과 지시집행에서 불굴의 정신력과 투신력, 완강한 실천력을 발휘해나갈데 대하여 재삼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공화국창건 73돐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공화국창건 73돐에 즈음하여 9월 9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인 조용원동지,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정치국상무위원회위원이며 내각총리인 김덕훈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박정천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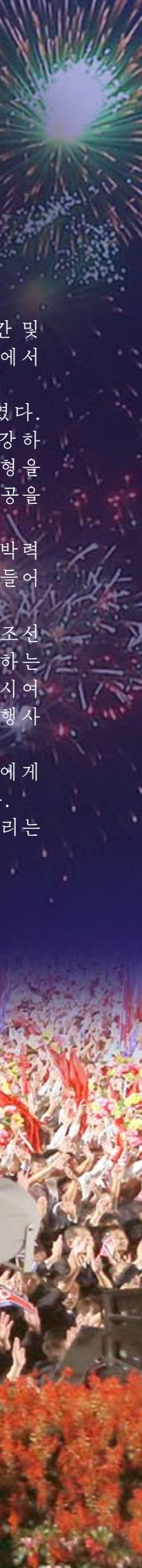
무력기관 책임일군들이 함께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드리는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와 존경하는 녀사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을 찾으신 총비서동지께서와 녀사께서는 한평생을 다 바쳐 진정한 인민의 나라,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 내 조국을 건설하시고 후손만대에 물려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삼가 영생축원의 인사를 드리시였다.

당과 정부의 간부들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건설사상을 높이 받들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당과 인민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나갈 굳은 결의를 다짐하였다.

특별소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3돐경축
민간 및 안전무력열병식 성대히 거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3돐경축 민간 및 안전무력열병식이 수도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히 거행되였다.
종합군악대의 특색있는 입장례식이 진행되였다.
락하산병들이 공화국기를 휘날리면서 강하기교를 펼치였으며 비행종대에 이어 부채살대형을 이룬 전투기들이 축포탄을 쏘아올리며 광장상공을 누비였다.
민간 및 안전무력열병종대들이 경쾌하고 박력있는 입장곡에 맞추어 위풍당당히 광장으로 들어섰다.
9월 9일 0시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열병광장 주석단에 나오시여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열병대원들과 경축행사참가자들에게 손저어 답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와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에게 소년단원들이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드리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울리는 속에 국기가 서서히 게양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3돐경축 민간 및 안전무력열병식 성대히 거행

《빛나는 조국》의 노래주악과 함께 21발의 례포가 발사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리일환동지가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고귀한 투쟁으로 지켜내고 떨쳐온 우리 식 사회주의를 끝없이 빛내이며 우리 국가제일주의기치아래 모두가 굳게 단결하여 공화국의 무궁한 번영을 위해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인 조용원동지가 열병부대들을 점검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동지께 조용원동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3돐경축 민간 및 안전무력열병식이 준비되였음을 보고드리였다.

민간 및 안전무력의 장엄한 열병행진이 시작되였다.

주체48(1959)년 1월 14일 로농적위군의 창건을 선포한 그날로부터 60여년간 마치와 낫, 붓과 함께 총대를 억세게 틀어잡고 사회주의건설과 조국보위의 임무를 영예롭게 수행하여왔으며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를 튼튼히 다지는데 커다란 공헌을 한 당의 혁명무장력, 주체적민간무력의 불패의 위용이 열병종대마다에 나래쳤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그 어떤 천지지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3돐경축 민간 및 안전무력열병식 성대히 거행

속에서도 령도자와 사상과 뜻, 운명을 함께 하고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억척불변의 맹세를 안고 지축을 울리며 나아가는 름름한 열병종대들에 전투적인사를 보내시였다.

로동당이 자랑하며 내세우는 대학의 청년학생답게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청춘도 생명도 바쳐 싸울 멸적의 기세 충천한 **김일성**종합대학종대, 김책공업종합대학종대와 항일의 소년선봉대, 전화의 소년빨찌산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나가는 붉은청년근위대종대가 광장을 활보해갔다.

민간무력종대들에 이어 광장에 들어선 사회안전군종대가 주석단앞을 보무당당히 행진해갔다.

특별소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3돐경축
민간 및 안전무력열병식 성대히 거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3돐경축 민간 및 안전무력열병식 성대히 거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3돐경축 민간 및 안전무력열병식 성대히 거행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의 믿음직한 정치보위대, 혁명무력의 일익을 담당한 정예부대의 필승의 기개를 떨치며 나아가는 열병대오에 뜨거운 인사를 보내시며 격려해주시였다.

로동당의 자위적군사로선의 생활력을 과시하며 로농적위군의 기계화종대들이 도도히 광장을 굽이쳤다.

인민의 생명재산을 굳건히 지켜갈 열의로 충만된 사회안전군 소방대종대가 열병식마감을 장식하였다.

열병식이 끝나고 또다시 경축의 축포가 터져오르는 속에 **김일성**광장에서는 청년학생들의 야회가 진행되였다.

야회 및 축포발사가 끝나자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우러러 터치는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뒤흔들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군중에게 오래도록 손저어주시며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3돐경축 민간 및 안전무력열병식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뭉쳐 자위의 굳건한 성새를 이룬 일심일체의 참모습과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신심드높이 나아가는 공화국의 기상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3돐경축 민간 및 안전무력열병식 성대히 거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3돐경축 민간 및 안전무력열병식 성대히 거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3돐경축 민간 및 안전무력열병식 성대히 거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3돐경축 청년학생들의 야회 진행

특별소식
인민공화국만세!
김정은동지께
영광을 드립니다
73돐
백두의혁명정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공화국창건 73돐 경축행사에 참가한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을 만나시고 축하해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9월 8일 공화국창건 73돐 경축행사에 참가한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을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만나시고 따뜻이 축하해주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의 손을 반갑게 일일이 잡아주시며 나라의 부강발전에 공헌한 긍지와 자랑을 안고 공화국창건일을 맞이하는 그들을 축하해주시고 우리의 성스러운 애국의 력사속에는 지켜선 일터와 초소마다에서 근로의 땀을 뿌리며 나라의 재부를 늘이고 과학과 문화전선의 선두에서 조국의 영예를 떨치며 사회주의문명의 개화기를 열어나가는데 크게 공헌한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의 공적이 진하게 슴배여있다고 치하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가사보다 국사를 먼저 생각하고 궂은일, 마른일 가림없이 한몸을 내대며 조국의 큰짐을 하나라도 덜기 위해 헌신분투하는 애국자들이 많은것은 우리 당과 국가에 있어서 커다란 힘과 고무로 된다고 하시면서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기념촬영에 이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본부청사 정원에서 성대한 경축연회가 진행되였다.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이 로력혁신자, 공로자들과 뜻깊은 자리를 같이하였다.

연회에서는 축하연설이 있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공업, 농업, 과학, 교육, 보건, 체육, 문화예술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충성과 애국의 길에 한생을 묵묵히 바쳐가는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을 몸가까이 불러주시고 그들의 건강과 사업성과를 따뜻이 헤아려주시였다.

학습과 소년단조직생활에서 남다른 모범을 보인 평범한 근로자들의 자녀들도 몸가까이 불러주신 총비서동지께서는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한 로력혁신자, 공로자들과 함께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 초대된 소년단원들이 참으로 기특하고 대견하다고 하시면서 자식들을 나라의 훌륭한 역군으로 키워가는 부모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부어주신 뜨거운 육친의 정과 크나큰 믿음을 한생토록 잊지 않고 끊임없이 전진비약하는 위대한 **김정은**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힘있게 추동하는 참다운 애국자, 열혈충신으로 삶을 빛내여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공화국창건 73돐경축 민간 및 안전무력열병식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3돐경축 민간 및 안전무력열병식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도착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사회주의조선의 국력과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자존과 번영의 새시대를 펼쳐가시는 총비서동지를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공화국창건일에 거행된 장엄한 열병식을 통하여 우리 국가의 민간 및 안전무력의 전투력과 단결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열병비행 및 강하임무를 훌륭히 수행한 전투비행사들과 락하산병들, 열병대원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며 그들의 성과를 치하해주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모든 열병식참가자들이 앞으로도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마치와 낫과 붓을 억세게 틀어쥐고 조국수호와 사회주의건설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거리마다에 차넘친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혈연의 정

공화국창건 73돐경축 민간 및 안전무력열병식 참가자들이 평양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수도의 거리를 통과

공화국창건 73돐을 경축하는
수도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의 군중시위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3돐을 경축하는 수도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의 군중시위가 9월 9일에 진행되였다.

정각 10시, 《**김정은**장군찬가》의 장중한 선률이 개선문광장을 진감하는 속에 공화국기발대렬을 선두로 하여 군중시위가 시작되였다.

프랑카드들을 들고 전진하는 성, 중앙기관일군대렬, 로동계급대렬, 농업근로자대렬, 지식인대렬을 비롯한 시위대렬마다에서 공화국기와 붉은기, 꽃다발들이 파도쳐 설레이고 우렁찬 함성이 연도를 진감하였다.

애국청년의 영예를 빛내여갈 열의로 가슴 불태우며 청년학생대렬과 소년단원대렬이 나아갔다.

시위참가자들은 개선거리와 천리마동상앞, 창전거리를 거쳐 **김일성**광장으로 힘차게 행진하였다.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들의 연도와 집집의 창가마다에서 그들을 격려하였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글 최광호

국방과학원 새로 개발한 장거리순항미싸일 시험발사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9월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장거리순항미싸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박정천동지가 당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인 김정식동지, 전일호동지와 함께 시험발사를 참관하였다.

국방과학부문의 지도간부들과 과학자들이 시험발사에 참가하였다.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 중점목표달성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전략무기인 장거리순항미싸일 개발사업은 지난 2년간 과학적이며 믿음직한 무기체계개발공정에 따라 추진되여왔으며 이 과정에 세부적인 부분시험들과 수십차례의 발동기지상분출시험, 각이한 비행시험, 조종유도시험, 전투부위력시험 등을 성과적으로 마쳤다.

발사된 장거리순항미싸일들은 공화국의 령토와 령해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비행궤도를 따라 7 580초동안 비행하여 1 500㎞계선의 표적을 명중하였다.

시험발사를 통하여 새로 개발한 타빈송풍식 발동기의 추진력을 비롯한 기술적지표들과 미싸일의 비행조종성, 복합유도결합방식에 의한 말기유도명중정확성이 설계상요구들을 모두 만족시켰다.

총체적으로 무기체계운용의 효과성과 실용성이 우수하게 확증되였다.

박정천동지는 당중앙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장거리순항미싸일의 성공적인 개발을 이루어낸 국방과학자들과 군수로동계급에게 열렬한 축하와 감사를 전하였다.

당중앙위원회의 특별한 관심속에 중핵적인 사업으로 완강히 추진되여온 이 무기체계의 개발은 공화국이 나라의 안전을 더욱 억척같이 보장하고 적대적인 세력들의 군사적준동을 강력하게 제압하는 또 하나의 효과적인 억제수단을 보유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철도기동미싸일련대 검열사격훈련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박정천동지가 철도기동미싸일련대의 검열사격훈련을 지도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군정지도부와 군수공업부 일군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와 국방과학연구부문의 지도간부들이 검열사격훈련을 참관하였다.

검열사격훈련의 목적은 처음으로 실전도입된 철도기동미싸일체계의 실용성을 확증하고 새로 조직된 련대의 전투준비태세와 화력임무수행능력을 불의적으로 평가하며 실전행동절차를 숙달하는것이였다.

철도기동미싸일련대는 9월 15일 새벽 중부산악지대로 기동하여 800㎞계선의 표적지역을 타격할데 대한 임무를 받고 훈련에 참가하였다.

련대는 철도기동미싸일체계 운영규범과 행동순차에 따라 신속기동 및 전개를 끝내고 받은 화력임무에 따라 조선동해상 800㎞수역에 설정된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였다.

박정천동지는 철도기동미싸일련대의 검열사격훈련이 당의 군사전략전술적구상과 기도에 맞게 성과적으로 진행된데 대하여 평가하였다.

그는 앞으로 빠른 기간안에 철도기동미싸일련대의 실전운영경험을 쌓고 철도기동미싸일려단으로 확대개편할데 대한 문제도 구체적으로 협의하였다.

《ㅌ.ㄷ》는 조선로동당의 뿌리, 단결의 전형, 조선혁명의 승리의 기치

95돐 ㅌ.ㄷ

올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타도제국주의동맹(략칭 《ㅌ.ㄷ》)을 결성하신 95돐이 되는 해이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던 시기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15(1926)년

해마다 10월 17일이 오면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15(1926)년에 결성하신 타도제국주의동맹(략칭 《ㅌ.ㄷ》)에 대하여 감회깊이 추억한다.

조선혁명의 영광스러운 력사는 타도제국주의동맹(《ㅌ.ㄷ》)의 전통과 위업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전면적으로 구현하여온 긍지높은 년대기이다.

바로 《ㅌ.ㄷ》의 결성으로 그 시원이 열린 조선혁명이고 이를 자기의 영광스러운 뿌리로 하여 장성강화된 조선로동당이다.

1920년대 당시 일제의 군사적강점하에 있던 조선은 하나의 커다란 감옥과 같았다.

청운의 뜻을 실현하지 못한 우국지사들은 가슴을 치며 통탄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길찾아 해외에까지 흩어져갔다.

바로 이러한 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시대의 절박한 요구, 인민대중의 절절한 념원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시였다.

주체15(1926)년 6월 중순 화성의숙(중국동북지방에서 활동하던 조선의 민족주의자들의 독립운동단체가 세운 2년제 군사정치학교)에 입학하신 그이께서는 당시까지의 독립운동실태를 분석하신데 토대하여 조선이 나아갈 앞길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탐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산당선언》을 비롯한 맑스-레닌주의서적들을 조선의 현실과 결부하여 열심히 탐독하시는 한편 뜻과 생사를 같이할 동지들을 한사람한사람 묶어세우시여 새형의

강병선

김원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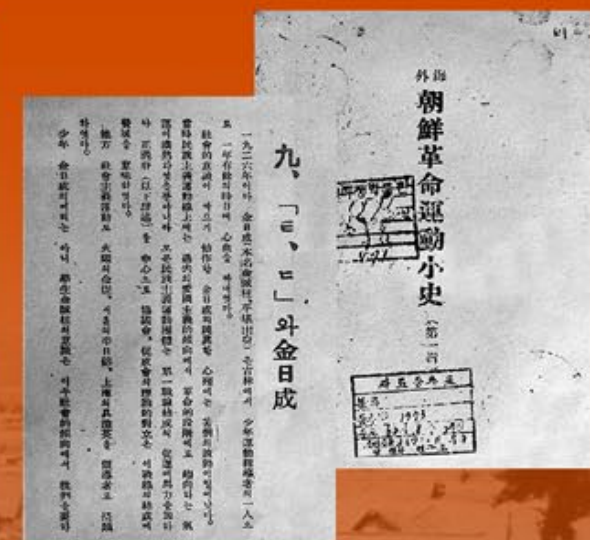
최창걸

계영춘

박근원

《ㅌ. ㄷ》 성원들이 비밀독서모임을 자주 가지던 집

朝鮮革命運動小史

九、「ㅌ、ㄷ」와 金日成

《ㅌ. ㄷ》 결성과 활동에 관한 출판물자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ㅌ.ㄷ》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여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ㅌ.ㄷ》를 뿌리로 하여 주체34(1945)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였다.

혁명조직을 내오실 준비를 갖추시였다.

그리고 주체15(1926)년 10월 17일 조직을 결성하는 모임을 가지시고 《제국주의를 타도하자》라는 보고를 하시였다.

모임에서는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달성하는것을 당면과업으로, 조선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며 나아가서 모든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세계에 공산주의를 건설하는것을 최종목적으로 하는 《ㅌ.ㄷ》의 투쟁강령이 일치가결로 채택되였다.

《ㅌ.ㄷ》의 결성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력사적인 선언이였다.

이때로부터 조선혁명은 사대와 교조, 종파와 결별하고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전진하는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되였다.

또한 조선에서 새형의 당, 주체형의 혁명적 당창건을 위한 투쟁이 개시되였으며 조선로동당의 영광스러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ㅌ.ㄷ》의 강령은 조선로동당강령의 기초로 되였고 《ㅌ.ㄷ》가 내세운 자주성의 원칙은 당건설과 활동의 원칙으로 되였으며 《ㅌ.ㄷ》가 키워내기 시작한 새세대 혁명가들은 당창건의 골간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ㅌ.ㄷ》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조선인민을 항일혁명투쟁에로 불러일으키시여 조국해방(1945. 8. 15.)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주체34(1945)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은 그후 《ㅌ.ㄷ》가 내세운 자주의 리념, 자주의 원칙을 조선혁명의 전투적기치로 높이 들고 조국해방전쟁과 두단계의 사회혁명에서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의 강권과 전횡에도 끄떡없이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왔다.

《ㅌ.ㄷ》의 전통을 혁명의 년대와 년대를 이어 꿋꿋이 계승하여온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사회주의수호전에서 련전련승을 이룩하며 불패의 위력을 높이 떨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혁명의 최고수위에 모신 조선로동당은 오늘도 《ㅌ.ㄷ》의 사상과 전통을 빛내이며 자주의 길을 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향도의 당, 불패의 당으로 그 위용을 높이 떨치고 있다.

글 김선명

수정공예 《여덟필의 준마》

Crystal work "Eight Steeds"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중국 심양문일기업공정광고유한공사에서 드린 선물
주체93(2004)년 4월 15일

인민들이 선호하는 질좋은 구두를 생산한다

- 원산구두공장을 찾아서 -

강원도의 원산구두공장에서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고있다.

지난날 평범한 지방산업공장에 불과했던 이 공장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거듭되는 현지지도를 받는 과정에 현대적이며 능력이 큰 신발생산기지로 전변되였다.

오늘 이곳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여러가지 애로와 난관속에서도 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면서 생산을 줄기차게 내밀고있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매봉산》구두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창조적열의가 계속 고조되고있다.

도안가들은 신발설계에 과학기술을 부단히 연구도입하면서 사람들의 기호와 미감, 체질과 년령, 계절적특성에 맞는 신발형태도안들을 더 많이 창작하고있다.

기술자들은 신발생산에 필요한 용매제들을 새로 개발하면서 원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공장에서는 또한 도안의 여러 공장들과의 협동을 긴밀히 하여 신발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들을 해결함으로써 제품의 원가를 계속 낮추고 질적측면에서 더 큰 개진을 가져오고있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자신들의 자질과 수준을 높여가고있는 공장의 종업원들

속에서 매달마다 진행되는 제품품평회에 우수한 창안품들을 내놓는 발명가들이 늘어가고있다.

그와 함께 원산구두공장에서 생산되여나오는 《매봉산》구두에 대한 인민들의 호평도 끊임없이 높아가고있다.

사진 리광성, 안철룡
글 최광호

대동강과수종합농장

평양시 삼석구역에 위치한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 올해에도 흐뭇한 작황이 펼쳐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있다.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의 첫해인 올해에 지난해보다 더 훌륭한 과일대풍을 안아오기 위하여 년초부터 가을철까지 아글타글 애써온 이곳의 농업근로자들이다.

과일나무들의 비배관리에서 기본은 영양관리를 잘하는데 있다는것을 자각한 이들은 과수와 축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마련한 수만t의 유기질비료와 흙보산비료를 정보당 수십t이상 냄으로써 모든 과수밭들의 지력을 부쩍 높였다.

농장에서는 선진적인 재배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과수업의 과학화, 집약화,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과일나무들에 대한 그루바꿈을 계획적으로 진행하는것과 함께 과일나무의 통기조건과 해비침조건을 개선하고 꽃눈형성을 촉진하는데서 중요한 공정의 하나인 가지자르기에 힘을 넣었다.

그리고 품종별특성과 영양상태에 따라 가지휘여주기, 가지솎음, 열매솎아주기 등 공정별비배관리를 더욱 알심있게 내밀었다.

또한 과수작업이 보다 세분화되여가는데 맞게 약뿌리기로부터 김매기, 비료주기 등 품이 많이 드는 작업들의 기계화비중을 더욱 높이였으며 관수체계를 정비보강하고 과일나무의 생육단계에 따르는 물주기도 과학적으로 하였다.

농장에서는 과일나무영양관리에 힘을 넣는 한편 농약생산기지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병해충의 발생시기를 예측하여 효능높은 생물농약을 시기에 맞게 분무해줌으로써 병해충피해를 극력 줄이였다.

하여 올해 봄철부터 지속된 불리한 기후조건속에서도 대동강반의 청춘과원에 또다시 황금열매 주렁진 황홀한 풍경을 펼쳐놓았다.

이곳에서 생산된 과일들은 수도시민들과 어린이들에게 공급되는 한편 대동강과일종합가공공장으로 운반되고있다.

현대적인 생산공정들이 갖추어진 공장에서는 과수종합농장에서 거두어들인 과일들로 단물과 술, 식초, 향수를 비롯한 수백가지에 달하는 제품들을 생산하고있다.

사진 리광성, 최원철
글 박병훈

평양양로원을 찾아서

풍요한 가을의 풍치가 나날이 짙어가는 문수지구의 대동강반에 자리잡고있는 평양양로원에 새날이 시작되였다.

70여년의 연혁을 가지고있는 평양양로원은 원래 오늘의 황해북도 승호군에 위치하고있었다.

나라의 부강번영과 후대들을 위해 성실한 삶을 이어온 전세대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면서 그들을 혁명선배로 존대하며 보살펴주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조치에 따라 주체104(2015)년 경치좋은 이곳에 새 양로원이 일떠섰다.

오늘 백수십명의 로인들이 이곳에 보금자리를 잡고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있다.

대다수 로인들의 아침일과는 구내의 꽃밭이나 수경온실 등을 찾는것으로 시작된다.

1시간가량 남새가꾸기, 꽃가꾸기를 진행한 후에야 로인들은 각자의 취미에 맞게 시간을 보낸다.

그중에는 이곳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김치옥로인(94살)도 있다.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아침부터 오륙을 놀리고 흙과 풀냄새, 꽃향기를 맡는것이 건강장수의 비결의 하나라고 확신하고있는 그이다.

꽃가꾸기후 오전시간을 전부 도서실에서 보낸다는 그는 지금 자서전적인 작품을 쓰고있다고 한다.

조국해방전쟁(1950. 6-1953. 7.)참가자로서 자신의 체험을 반영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잘 안된다며 그는 속마음을 터놓는다.

즐거움과 랑만에 넘친 로인들의 생활모습은 운동실과 오락실, 영화관람실 등에서도 펼쳐진다.

그중에서도 로인들이 즐겨 찾는 곳은 다기능종합안마의자, 자전거운동기재, 걷기운동기재 등이 주런이 서있는 운동실이다.

《매일 적당한 운동을 해야 건강을 유지할수 있다. 이곳에서 땀을 흘리고나면 청춘시절로 되돌아가는것 같다.》

평양목재공장 로동자였던 석경숙로인의 말이다.

영화관람실과 오락실에서도 마음에 드는 영화들을 시청하거나 화면반주음악에 맞추어 노래도 부르고 장기, 윷놀이를 비롯한 민속놀이로 즐거운 시간이 흘러간다.

이뿐이 아니다.

현대적인 의료설비들이 갖추어진 양로원에서 로인들은 무상치료제도의 혜택도 누려가고있다.

명절이나 생일에는 양로원종업원들은 물론 정권기관의 책임일군들을 비롯하여 이곳을 찾아오는 각계층 사람들로부터 축하의 인사를 받는다.

평양양로원에서 여생을 즐겁게 보내고있는 로인들

정춘실 (90살)

《식료품은 물론 화장품과 내의에 이르기까지 생활에 필요한 모든것을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보장받고있다. 부러운것이 하나도 없다.》

한성수 (76살)

《<세월이야 가보라지>라는 노래가 있다. 이곳에서 생활하느라면 때없이 이 노래가 절로 나온다.》

김춘화 (78살)

《13년전 양로원에 올 당시에는 심한 척추병으로 서기도 힘들어했다. 지금은 자유로이 걷는것은 물론 운동도 하고있다.》

그런 날이면 의례히 춤판이 펼쳐진다.
높아가는 사회적관심과 보살핌속에 나날이 즐거움과 행복감에 젖어있는 양로원의 로인들이다.

사진 리성익, 황정혁
글 김선명

적극화되고있는 건물지붕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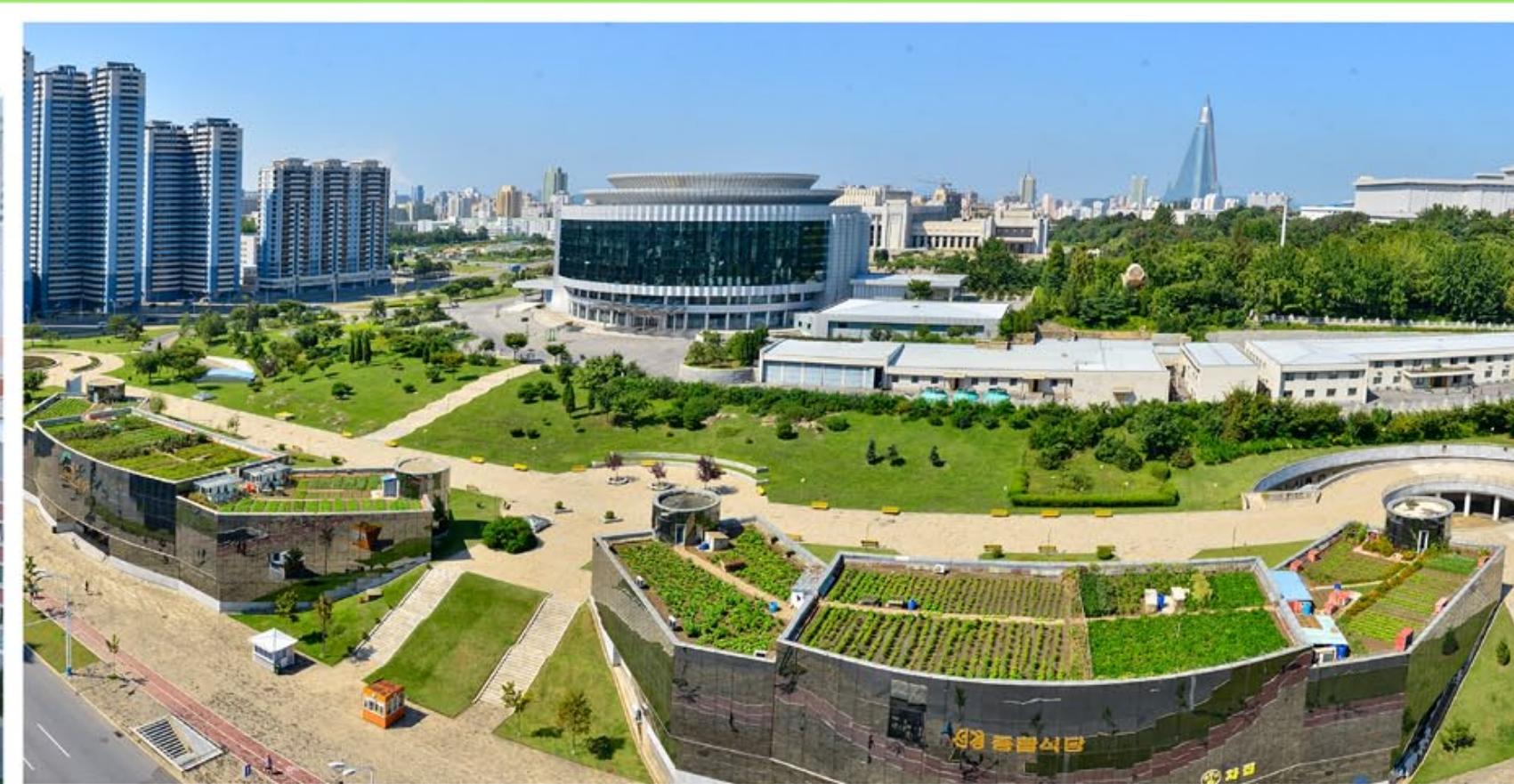
평양시에서 지붕록화를 실현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단위들이 늘어나고있다.

평양전자의료기구공장의 문화후생시설인 솔향원의 지붕은 아담한 공원이나 정원을 방불케 한다.

장미, 다리아, 백일홍과 같은 화초들과 매화나무, 적단풍나무를 비롯한 나무들, 억새풀 등 관상용풀이며 푸른 잔디밭이 사방 아름다운 경치를 펼치고있다. 기묘한 바위들이며 폭포와 걸음길, 의자 등도 조화롭게 배치되여있는 이곳에서 종업원들은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낸다고 한다.

창전거리에 자리잡고있는 중구역 선경료리전문식당에서도 지붕록화를 실현하여 그 덕을 보고있다.

이곳 봉사자들은 지붕공간에 여러가지 작물들을 적극 심어 가꾸면서 그 수확물을 봉사활동에 리용하니 환경보호나 경영활동의 측면에서 모두 실리적이라고 말한다.

미래과학자거리에 위치한 평천구역 미래동주일탁아소 역시 록색건축시대의 요구에 맞게 지붕록화를 실현한 단위이다.

1 000㎡ 남짓한 탁아소건물의 지붕에서는 많은 식물들이 록색단장을 하고 건축물의 풍치를 돋구고있다. 그와 함께 꾸려진 온실과 인공못도 환경을 보호하는것과 함께 다양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고있다.

탁아소소장은 지붕록화를 실현하니 건물의 랭난방에네르기소비를 줄이는것을 비롯하여 좋은 점이 많다고 강조한다.

온 나라 도처에서 자기가 사는 거리와 마을, 일터를 수림화, 원림화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속에 지붕록화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계속 커가고있다.

사진 최원철
글 강수정

산촌의 젖제품생산기지

- 강동군 구빈축산전문협동농장을 찾아서 -

아름드리나무들이 꽉 들어찬 산발들, 산기슭을 따라 아담하게 들어앉은 문화주택들, 골짜기와 산릉선들로 줄지어흐르는 염소떼, 젖소떼들…

이것은 평양시 강동군 읍에서 남동쪽으로 100리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구빈축산전문협동농장의 풍경이다.

두메산골인 이곳은 부침땅이 매우 적고 그나마 경사진 돌밭이 태반이여서 알곡소출도 보잘것 없는 곳이였다.

그러한 구빈리가 20여년전부터 변모되기 시작하였다.

이곳 사람들은 부침땅면적이 제한되여있고 산이 많은 실정에 맞게 풀먹는 집짐승을 많이 기를데 대한 국가의 정책을 구현하는데서 자기 마을이 부흥할 방도를 찾았던것이다.

모두가 달라붙어 주변의 산들에 1 000여정보에 달하는 인공풀판과 자연풀판을 조성하였으며 근 100개의 염소우리를 건설한데 이어 젖소우리와 토끼우리 등도 하나하나 일떠세웠다.

염소젖을 가공하는 젖가공장도 꾸려놓았다.

젖제품의 질을 높여간다

점차 축산기지들이 활성화되면서 거기서 나오는 거름원천을 리용하니 논밭들의 지력도 훨씬 높아졌다.

축산이 잘되니 농사도 잘되고 농장살림이 흥해가니 집집의 살림도 더욱 윤택해진다고 이곳 농장원들 누구나 말하고있다.

최근년간 농장에서는 염소에 의한 젖생산을 계속 다그치는것과 함께 선진적인 인공수정방법으로 젖소의 마리수를 부쩍 늘임으로써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젖생산을 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젖가공품들은 리안의 탁아소와 유치원, 학교는 물론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비롯한 시안의 탁아소와 유치원들에 정상적으로 공급되고있다.

오늘 구빈리사람들은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수많은 집짐승을 기르고있으며 평범한 농장원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축산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제나름의 일가견을 가지고있다.

신젖과 빠다, 치즈를 비롯하여 이곳에서 나는 질이 높고 맛이 독특한 젖가공품들과 함께 농장은 전국에 널리 알려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직접 보고 배우기 위하여 구빈리를 찾고있다.

사진 리성익, 황정혁
글 박병훈

은정차

Unjong Tea

조선인민들속에서 은정차에 대한 호평이 높아가고있다.

전문가들은 이 차에 여러가지 약리작용을 하는 성분들과 필수아미노산, 비타민C, E를 비롯한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포함되여있어 정상적으로 마시면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비대를 막고 심장활동을 원활하게 하며 피로회복과 로화방지에 효과적이라고 하고있다.

조선에서 은정차나무는 황해남도 강령군, 강원도 고성군 등 기후가 비교적 온화한 지대들에서 재배되고있다.

자연상태에서 차나무는 보통 7~8m 자라지만 이 지대의 재배원들에 꽉 들어찬 차나무들의 키는 1~1.5m정도이다. 차나무의 번식은 주로 가지심기로 한다.

차잎은 6-7월에 3~4차에 걸쳐 따들이는데 1차로 수확하는 차잎의 영양가치가 으뜸이며 이때의 수확량도 제일 많다고 한다.

누구나 즐겨 찾는 음료입니다.

따들인 차잎은 가공방법에 따라 록차, 홍차 등으로 구분되게 된다.

은정차는 85~90℃의 더운물 150㎖에 차잎을 2g 넣고 2분정도 있어야 그 색과 맛이 가장 훌륭해진다.

지금 평양시의 차집과 식당들을 비롯한 전국도처에서 은정차는 모든 사람들의 찬사를 받고있으며 그 수요는 날이 갈수록 높아가고있다.

최근에는 은정차음료공장이 새로 일떠서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고있다.

그와 더불어 천수백년의 력사를 가지고있는 조선민족의 차문화는 계속 발전하고있다.

사진 리광성
글 김선경

흥성이는 상업구

- 려명거리종합상업구를 찾아서 -

평양시 대성구역에서 가장 높은 70층살림집지구에 려명거리종합상업구가 자리잡고있다.

70층과 55층살림집건물의 기단층들을 련결하고 있는 종합상업구는 4층으로 되여있다.

상점과 식당, 전시장, 약국, 꽃방, 사진관, 어린이놀이장, 정보기술교류소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된것으로 하여 려명거리의 주민들 누구나 이곳을 즐겨 찾는다.

공업품, 식료품, 건재품, 기공구, 전자제품 등 각종 질좋은 상품들을 판매하는 상점들만 해도 20여개나 된다.

그가운데서도 《매봉산》구두, 《은하수》화장품, 《봄향기》화장품, 약산단, 구룡단, 《대동강》타일제품들을 비롯하여 국내의 명제품들을 봉사하는 매봉산상점, 룡흥비단상점 등은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다.

훌륭한 봉사시설들과 환경을 갖추고있는 이곳의 식당들 역시 평양랭면, 평양온반을 비롯한 우수한 민족료리들을 잘 만들어 봉사하는것으로 하여 손님들의 호평을 모으고있다.

어린이놀이장도 려명거리지구 아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은 곳이다. 좋아라 뛰노는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들과 로인들도 이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군 한다.

사방 시원하고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져있고 교통조건도 편리한 려명거리종합상업구지구는 지역의 주민들뿐아니라 각지의 손님들이 수많이 찾아오는것으로 하여 언제나 밤깊도록 잠들줄 모른다.

사진 리철진
글 김선경

려명거리종합상업구

신선하고 맛좋은 명료리봉사

조선의 첫 국제축구련맹 녀자심판원

리홍실

평양국제축구학교 교원인 공훈체육인 리홍실에게는 조선녀자축구의 첫 세대라는 긍지와 함께 나라의 첫 녀자축구국제심판원이라는 남다른 자부심이 있다.

어려서 함경북도체육단(당시)에 있던 그가 주체77(1988)년에 국가녀자축구종합팀에 선발되게 된것은 그해에 진행된 전국인민체육대회 녀자축구경기 결승경기때 전문가들의 주목을 끌었기때문이였다.

그는 선수번호 10번을 달고 팀의 중앙공격수로 활약하였다. 빠른 속도와 재치있는 빼몰기, 정확한 문전결속은 그의 특기였다.

리홍실은 벌가리아에서 진행된 국제녀자축구경기대회에서 조선팀이 넣은 총 득점수의 절반이 넘는 7개의 꼴을 넣은적도 있었다.

청춘시절의 꿈을 푸른 잔디우에서 꽃피워가는 나날에 그는 축구와 함께 한생을 빛내일 결심을 품게 되였다.

하여 선수생활을 마친 후 조선체육대학을 나오고 축구심판원이 되였다.

국제경기들에 심판원으로 참가하였던 리홍실의 사진자료중에서

그는 오늘도

축구선수후비육성사업에 전심하고있다.

주체86(1997)년 공화국의 첫 녀자축구심판원에 이어 첫 국제축구련맹 녀자심판원으로 경기마당에 나선 리홍실은 10여년동안 국제녀자축구경기대회들에서의 훌륭한 심판활동으로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 기간 선수후비양성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그는 심판사업을 끝마친 다음해인 주체102(2013)년부터는 평양국제축구학교에서 전망성있는 선수후비들을 직접 키워오고있다.

오늘도 축구공과 인연을 맺고 축구발전을 위한 길에서 생의 보람을 찾는 그를 보며 후배들과 제자들은 감동을 금치 못한다.

그럴 때면 그는 말하군 한다.

축구로 이어진 나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사진 안철룡
글 최광호

집선봉의 구름바다

조선의 6대명산 금강산

조선의 명산

금강산

별금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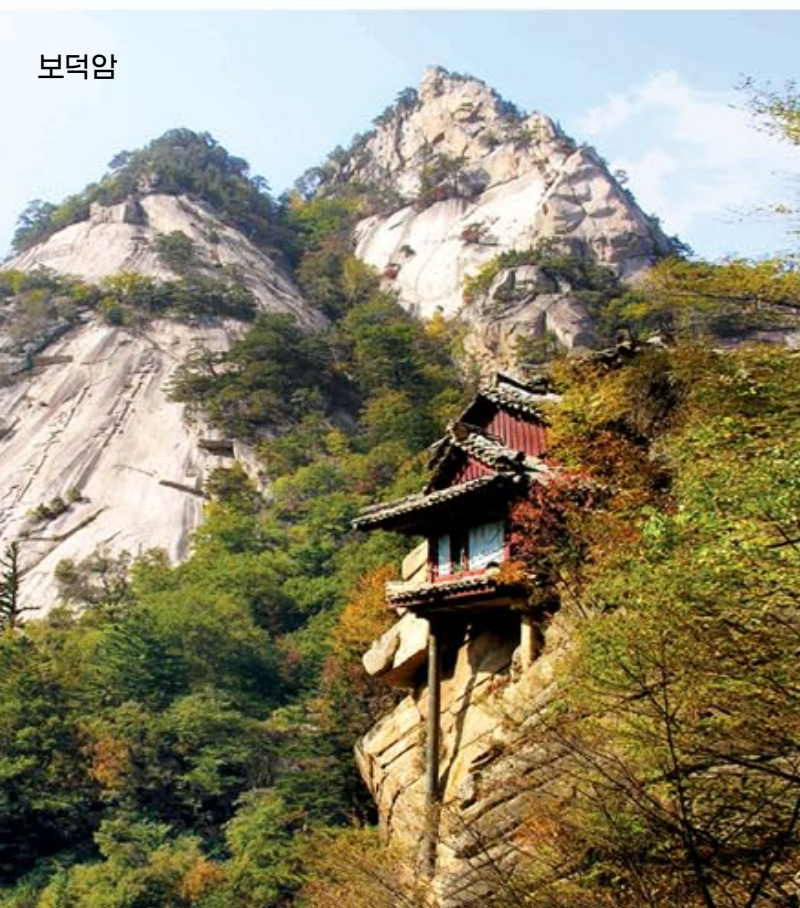
보덕암

백두대산줄기의 중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강원도 고성군과 금강군의 넓은 지역과 통천군의 일부를 포괄하고있는 금강산은 조선의 6대명산중의 하나이다.

금강산은 산악미, 계곡미, 전망경치, 호수경치, 바다와 해안경치 등을 다 갖추고 있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한곳에 모아놓은 명승의 집합체를 이루고있다.

하늘을 찌를듯이 높이 솟은 기묘한 봉우리들과 각양각색의 기암들, 거대한 층암절벽들과 깊은 계곡들, 도처에 이루어진 수많은 담소, 못들과 폭포들, 울창한 수림 등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금강산의 경치는 볼수록 장관이다.

하여 예로부터 《돌이 만가지 재주를 부리고 물이 천가지 재롱을 피우며 나무 또한 기특하니 천하절승이 여기 다 모인것 같다.》, 《금강산을 보기전에는 산수의 아름다움을 말하지 말라.》라는 말들이 전해져오고있다.

금강산에는 비로봉, 차일봉, 백마봉을 비롯하여 높고낮은 산봉우리들이 매우 많다.

비봉폭포

그러므로 예로부터 금강산을 1만 2천봉이라고 불렀다.

산봉우리마다에는 삼선암, 토끼바위 등 무수한 기암괴석들과 천선대, 백운대 등 20여개의 전망대, 금강문, 수정문을 비롯한 8개의 자연돌문 그리고 금강굴, 보덕굴 등 많은 석굴들이 있다.

금강산에는 온정천계곡, 선창계곡, 구성계곡, 만천계곡 등 깊고도 우아한 골짜기들도 많다.

그 가운데서 제일 아름다워 금강산의 계곡미를 대표하는 명승은 내금강의 만폭동이다.

물자원이 풍부하고 산림이 울창한 금강산은 하천과 폭포, 담소의 경치 또한 유명하다.

이곳에는 조선동해로 흘러드는 남강, 온정천, 천불천, 선창천과 조선서해로 흘러드는 북한강의 지류들인 금강천, 동금강천 등이 있다.

구천폭포

조선의 명산

금강산

그리고 금강산의 4대명폭인 구룡폭포와 비봉폭포, 옥영폭포, 십이폭포를 비롯하여 봉황새가 춤을 추는듯 한 무봉폭포, 비단을 드리운듯 한 비단폭포 등 각양각색의 크고작은 폭포들이 있다.

이곳에는 관동8경의 하나로 이름난 삼일포를 비롯하여 영랑호, 감호 등 자연호수들도 있다.

또한 금강산천지로 알려진 금강못,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하였다는 상팔담과 문주담을 비롯한 담소들이 수없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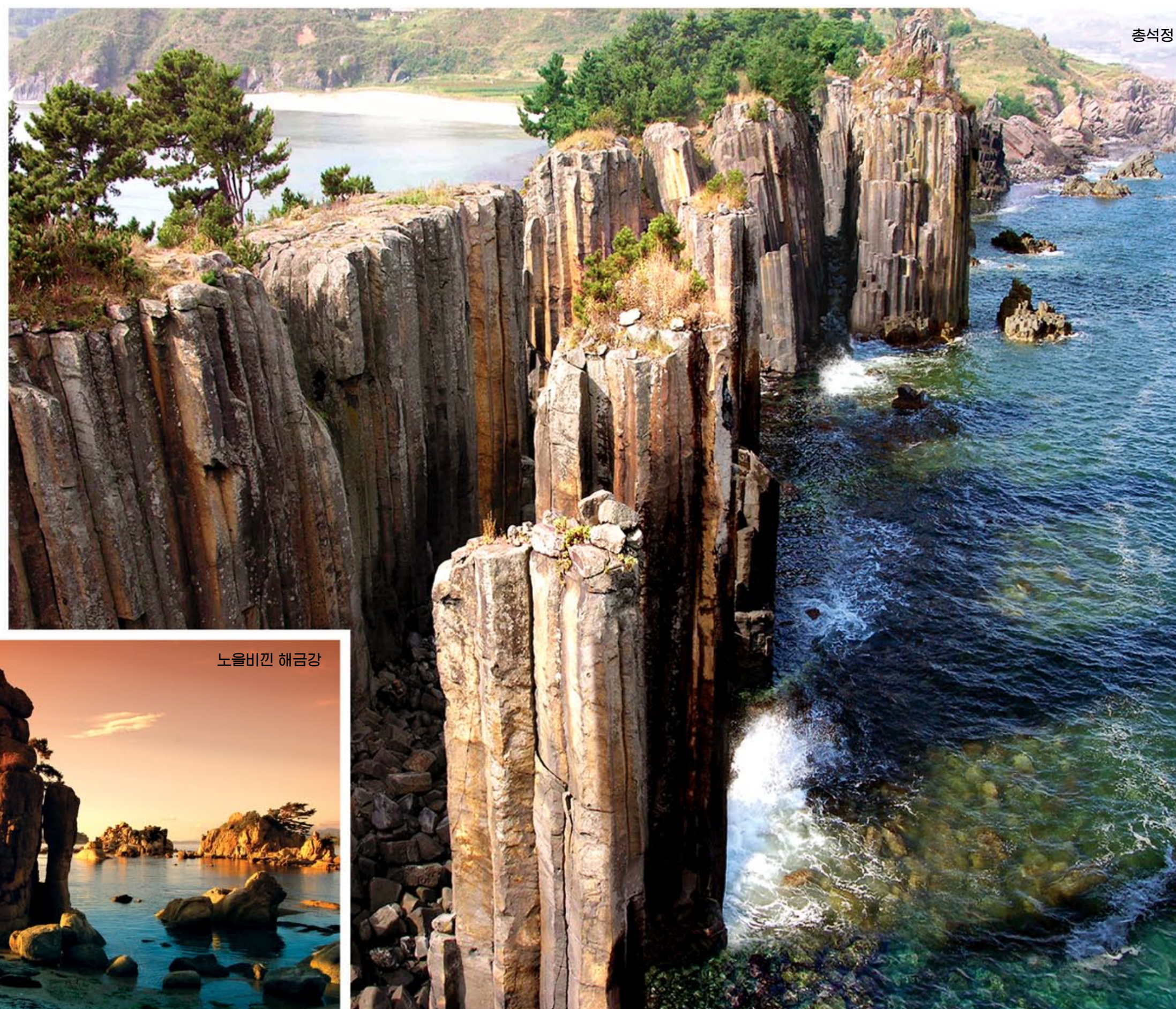
이렇듯 산악미, 계곡미, 고원경치, 전망경치, 호수경치, 바다와 해안경치 등을 다 갖추고있는 금강산은 단순한 하나의 명승이 아니라 자연의 모든 명승이 한곳에 모여진 집합체나 다름없다.

사진 리민천, 리성일, 김진호, 홍 훈
글 김선명

귀면암

삼선암

조선의 명산

금강산

총석정

노을비낀 해금강

삼일포

조선민족의 원시조인 단군의 릉

조선민족의 시조 단군의 화상

단군은 B.C. 3000년기초에 도읍을 평양성에 정하고 처음으로 나라를 세웠다. 이때 세운 나라의 이름을 옛 기록에서는 《조선》(고조선)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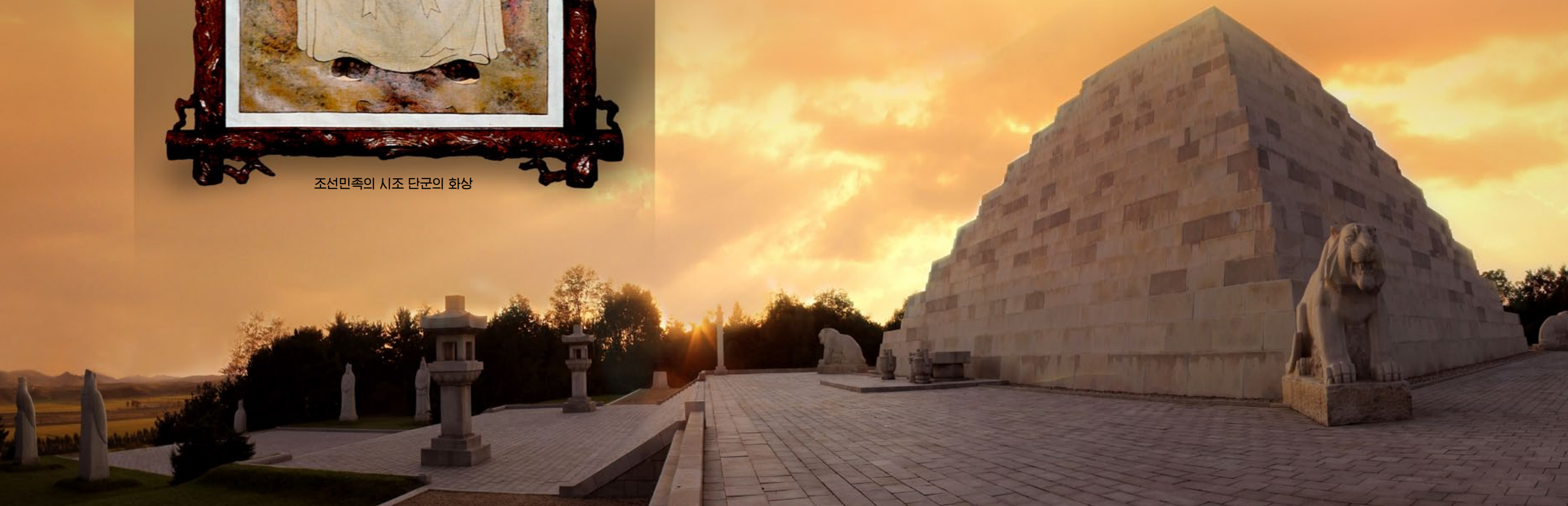
동방에서 처음으로 국가를 세움으로써 조선에서는 원시시대가 끝나고 조선민족은 국가시대, 문명시대에 들어서게 되였다.

평양시 강동군 문흥리 대박산기슭의 나지막한 산마루에 단군릉이 솟아있다.

단군은 오랜 세월 신화적인 존재로만 간주되여왔다.

주체82(1993)년에 릉에 대한 발굴조사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2구의 유골이 나졌는데 그 년대를 측정한 결과 5 011(±267)년전의것으로 밝혀졌다.

단군릉의 발굴과 단군의 유골발견을 통하여 조선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진 오랜 력사국이며 조선민족은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단일민족임이 확증되였다.

그리고 조선민족은 평양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되고 발전하여왔다는것을 립증할수 있게 되였다.

무덤칸의 내부

종전까지도 신화적, 전설적인물로 간주되여온 단군이 실재한 인물이라는것이 밝혀진데 따라 강동군의 명당자리에 돌로 된 계단식의 단군릉이 새로 건설되였다.

총 부지면적이 45정보에 달하는 단군릉은 크게 단군릉개건기념비구역과 석인상구역 및 중심구역으로 나누인다.

단군릉개건기념비구역에는 단군릉개건기념비와 단군릉수축비 및 릉의 문기둥이 있다.

단군릉개건기념비의 앞면에는 《단군릉개건기념비》라는 글발이 새겨져있고 뒤면에는 민족의 원시조를 찾아주시고 단군릉을 개건하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업적을 칭송하는 헌시가 새겨져있다.

석인상구역은 단군의 아들들과 측근신하들을 형상한 조각상들이 배치되여있는 구역으로서 돌계단 좌우에 전개되여있다.

중심구역에는 넓은 기단이 있고 이 기단우에 무덤무지를 중심으로 돌상과 돌향로, 돌범상, 망주석이 배치되여있다.

기단밖의 구역에는 돌등과 검탑이 서있다.

맏아들 부루

둘째아들 부소

셋째아들 부우

넷째아들 부여

검탑

단군릉기적비

문기둥

석등

무덤무지는 모두 크게 9단으로 되였고 매개의 단은 다시 3단으로 나누어 조금씩 차례줄임하였다.

무덤칸은 무덤무지의 중심에 기단과 거의 수평되는 위치에 있다.

무덤칸바닥에는 2개의 관대가 남북방향으로 나란히 놓여있고 그우에는 단군과 그 안해의 유골이 있는 관이 각각 놓여있다.

유골은 유리관안에 있으며 유리관은 나무관으로 덧씌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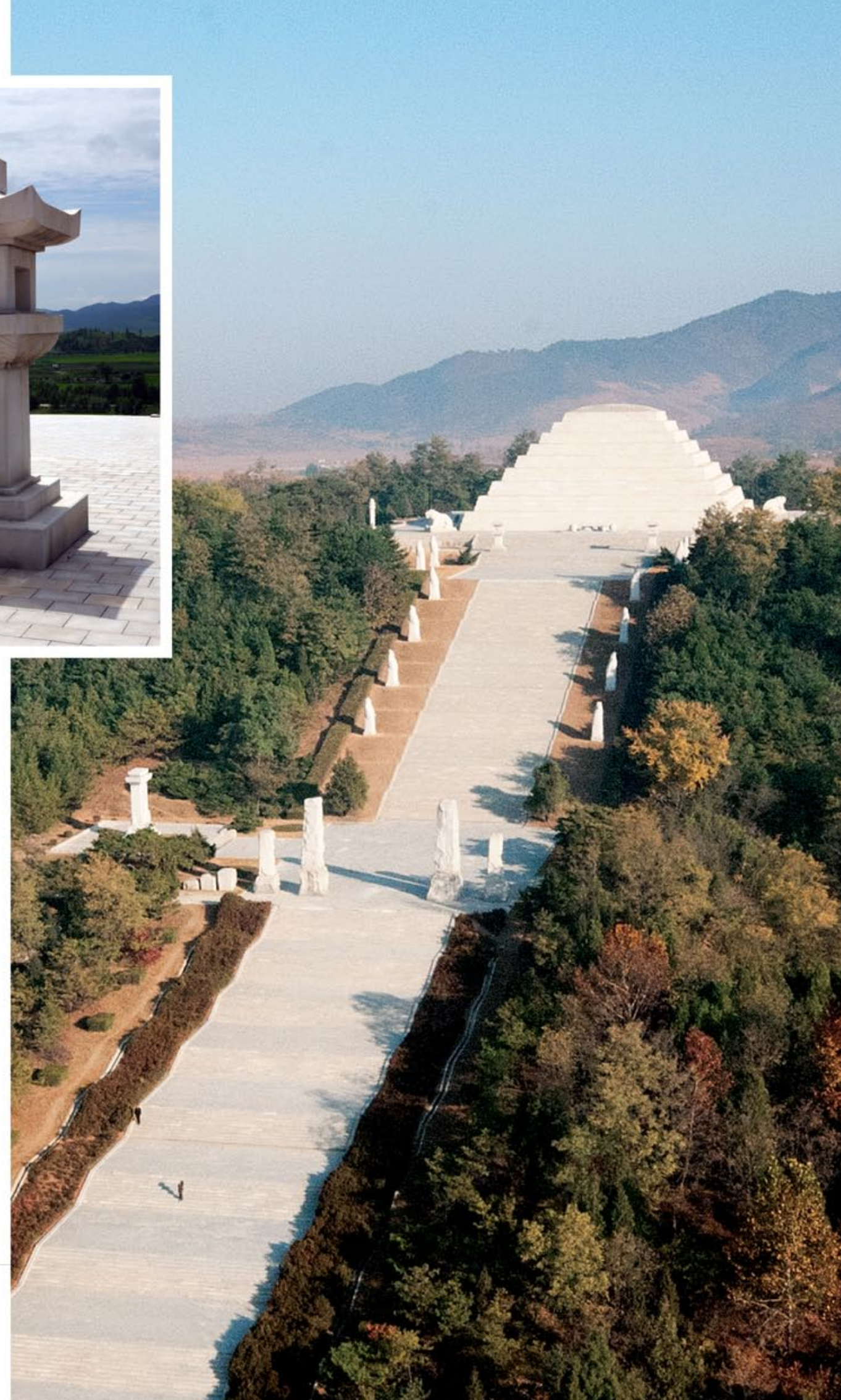
무덤을 향하여 왼쪽에는 단군의 유골, 오른쪽에는 단군의 안해의 유골이 들어있는 관이 있다.

관들의 길이는 2. 2m, 너비는 0. 93m, 높이는 0. 88m이다.

관대들의 길이는 2. 3m, 너비는 1m, 높이는 0. 8m이다.

무덤칸 정면에는 단군의 화상이 걸려있다.

사진 신충일
글 박병훈

조선에서는 해마다 개천절(10월 3일)을 맞으며 단군제를 지내고있다.

《천리마-804》형 뜨락또르

"Chollima-804" Tractor

13606-2180211

낸곳:© 조선화보사 2021 주소: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화보 《조선》은 인터네트 《조선의 출판물》 홈페지에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 프랑스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전자우편(E-mail):flph@star-co.net.kp